

잘못된 내용·비방 수단

인터넷 속 '쓰레기불교정보' 심각... 검증·관리 기구 필요

무속과 혼동·기초교리 왜곡 '치명적'

'보통 무속과 점을 미신이라고 무시하는데, 사실 불교보다도 접근 사주가 고통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습니다.' <다음의 S카>
'아라한은 최고의 무술을 뜻합니다.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불교에 갓 입문한 30대 후반의 직장인 P씨. 최근 개인신 신자인 직장 동료에게 '불교도 신(神)을 믿는다' 했다가 큰 망신을 당했다. 그간 인터넷에서 얻은 왜곡된 정보를 믿었던 것이 문제가 됐다. '아차!' 하는 생각에 인터넷을 다시 검색. 처음부터 잘못된 정보를 취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P씨의 자책감은 원망과 불만으로 옮겨간다. '왜 불교정보를 제대로 관리하는 단체가 없을까?'

P씨와 같은 사례는 비밀비재로 일어나고 있다. 인터넷상 불교관련 정보들의 오류·편향·왜곡·비방 현상이 심각하다. 게다가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잘못된 불교정보들이 폭발적인 인터넷 파급력을 타고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데다 최근 '지식 검색'이란 정보교환 시스템이 네티즌을 정보 생산층으로 만들면서 이

같은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본지가 불교관련 사이트 200여 곳을 파악한 결과, 이러한 현상은 30곳(15%) 사이트에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오류 5곳, 편향 6곳, 비방 3곳 등이며, 왜곡 사례는 16곳으로 파악됐다.

특히 무속·점 문화를 조장하는 왜곡된 정보들의 경우, 일반인은 물론 초보불자들에게 불교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까지 불러 일으켜 신행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가 '구'자, '보살' 등의 불교용어 악용이다. ㄹ사이트의 경우, '구'자를 홈페이지 상단에 게시하면서 무속행위가 불교인 것처럼 악용하고 있다. 또 '보살'이란 불교의 고유단어도 아예 무속용어로 변용하면서 '불교=무속'이란 잘못된 인식을 고착화하고 있다.

불교교리를 자의적 해석한 타종교 단체의 홍보자료에서도 확인된다. 'x', 'c' 종교의 경우, 미륵불 사상을 해석하는데, 현존하는 교조를 미륵불로 보고 있다.

이 사이트에 따르면, "교주○○○은 절대신으로 있다가 천체의 신

성불보살들이 하소연함으로써 이 세상에 내려왔다. 전라도 모악산 금산사 미륵금상에 임하여 30년을 보내고 스스로 강림했다...(생략)"며 불교의 미륵사상을 왜곡했다.

심지어 불교에 대해 반감을 일으키는 정보들도 인터넷상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티불교'의 경우, 스님들의 폭력·성폭행·강간사건, 종교분쟁 조장 등을 기사나 실화형식으로 소개하는 한편, '백일기도 출산은 70%가 승려와의 불륜에서'라는 비방의 글까지 사이트에 게재돼 있다.

천리안불교동호회장 박수호 씨는 "불교관련 정보 왜곡 등의 현상이 영 어권 불교 사이트에까지 번역돼 재생산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렇다할 대책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육식을 가리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데에 있다. 게다가 종단 및 사찰 등의 기관들이 이를 검증할 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인식은 기본적인 현황조사의 부재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인터넷 상에서 불교관련 '오류, 편향, 비방, 왜곡' 사례를 파악한 자료집은 전무하다. '왜'는 둘째 치고 '무엇이' 문

제가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셈이다. 또 그나마 조계종에 있던 종교편향위원회도 종무행정 공식기구에서 없어졌다. 올 2월에 조계종 중앙신도회로 소관 업무가 이관되면서 업무공백까지 빚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본적인 사례접수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도교육을 맡고 있는 포교원 신도국도 손놓고 있기는 마찬가지. 인터넷 공간의 속성은 네티즌의 자율성과 정보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부분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관련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제시하는 대안은 '전담 기구' 설치다. 이 기구를 통해 우선, 잘못된 불교관련 정보를 '오류·편향·왜곡' 등으로 유형별로 묶어 사례집을 발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또 범종단 차원의 '인터넷 불교정보 검증위원회'를 조속히 꾸려, 잘못된 불교정보의 공유했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단과 신도단체간 역할 분담도 요구된다. 종단은 자문, 지원 등을, 신도단체들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 사례 접수 등을 나눠 맡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또 인터넷 포교사로서 활동할 전문인력 양성도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다.

김철우·김은경 기자



"비닐천막으로 마애불을 보호하라"

경북 영주시 가흥동 마애삼존불상(보물 제221호) 주변 암반을 덮어 둔 비닐 천막과 모래자루가, 연접한 도로·인근의 아파트와 함께 문화재 보호의 한계를 대변해 주고 있다. 사진=임연태 기자

영주 가흥동 마애삼존불 암반 "보강 시급"

공주대 안전진단 결과

보물 제221호 영주 가흥동 마애삼존불상 주변의 암반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연구소는 최근 이 지역 암반에 대한 정밀구조안진단 결과 "진단결과 마애삼존불상이 조각된 바위를 포함 주변의 암반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여서 조속히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주시는 내년부터 보강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경상북도문화재위원회는

2003년 6월 28일 가흥동 마애삼존불상 좌측 아랫부분이 무너지면서 새롭게 발견된 마애불을 기존의 보물 제221호 마애삼존불상에 포함해

'가흥동 마애불상군'으로 명칭을 변경, 국보로 승격 지정해 줄 것을 문화재청에 신청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주=임연태 기자

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02)737-0090(직) · 737-8881(대)

"광개토대왕은 전륜성왕"

'광개토대왕은 인도 아쇼카왕에 버금가는 전륜성왕이다.' 최근 고구려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광개토대왕은 불교를 국가통치 이념으로 삼아 국리민복을 추구한 '전륜성왕'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런 주장을 제기한 학자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고대불교사를 전공하고 있는 조경철 연세대 강사.

조 씨는 논문 '광개토대왕대 영락기년 검토와 불교'를 통해 <삼국사기>에 고국양왕이 반포한 것으

로 돼 있는 '불법을 믿어 법을 구하라'는 내용의 교서가 광개토대왕이 반포한 것임을 밝혀내고, 이를 근거로 불교와의 관련성 규명을 시도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고국양왕이 교서를 반포한 때는 392년. 같은 해 고국양왕이 죽고, 광개토대왕이 즉위한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광개토대왕비의 연호원년이 391년 이어서 학계는 <삼국사기>의 392년을 391년으로 수정해서 연대를 계산함으로써 난점을 피하고 있다.



광개토대왕 영정(국립현대미술관, 이종상 작)

'불법을 믿어 법을 구하라' 교서 조경철 씨, '영락' 연호 등 분석 주장

이에 대해 조 씨는 5호 16국과 백제를 비롯한 광개토대왕 당시 동아시아에서는 유년칭원법이 일반적이었음을 근거로 고구려 또한 유년칭원법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보고 즉위년은 영락원년인 391년 보다 한 해 앞선 390년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유년칭원법은 전 왕이 죽은 이듬해(새 왕이 즉위한 다음해)를 원년으로 삼는 것이다. 그 1년의 차이가 광개토대왕과 불교 관계 이해에 결정적으로 중요함을 조 씨는 강조한다. 광개토대왕이 390년에 즉위했다면 391

년에 반포된 '불법을 믿어 법을 구하라'는 교서는 광개토대왕의 것임이 확실해지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조 씨는 광개토대왕의 통치이념을 읽어낸다. "광개토대왕은 인도 아쇼카왕에 버금가는 전륜성왕이었다. 그의 통치이념은 '영원한 법의 즐거움'을 뜻하는 영락이라는 연호에 응축돼 있다." 조 씨의 논문은 10월 9일 서울 시립대에서 열리는 한국고대사학회(회장 이문기)에서 발표된다. 박익순 기자 uf@buddhapia.com



해운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남북공동 금강산 신계사 복원불사

이 빈터에 가람을 다시 세우고 부처님을 모셔야 합니다!

- 신계사는 유점사, 표훈사, 장안사와 더불어 금강산 사대명찰의 하나로서 신라 법흥왕 6년 보은화상이 창건한 1500년된 전통사찰입니다. 21동에 이르는 당우와 8개의 산대 암자를 거느린 대찰이 6.25 전쟁속에서 모두 소실되고 주춧돌만 남았습니다.
- 남북 불교계는 분단 이후 최초로 전통사찰을 복원하여 불교성지 금강산을 되살리고 남북통일의 초석을 놓고자 합니다. 신계사 복원은 민족의 상처와 분열을 치유하고 화합과 통일을 앞당기는 역사적인 불사입니다.
- 신계사 불사는 통일부의 승인하에 올해부터 4년동안 원형 그대로 복원되며, 오는 11월 19일 신계사 대웅전 낙성식을 할 예정입니다.
- 불사 참여방법
 - 예금주 : 재) 대한불교조계종
 - 은행 : 국민은행 023501-04-006679 농협 053-01-255568
- 문의 : 금강산 신계사 복원 추진위원회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 연락처 : 조계종 사회부 Tel: 02-2011-1821 Fax: 02-735-0614
 -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Tel: 02-2011-1818 Fax: 02-720-0532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산 신계사 복원 추진위원회